

2020 **꿈** 을 쫓다 <3> 서양화가 박인선

“건물마다 다른 표정...인간의 모습 닮아 있어”

사진과 회화 결합한 작품 인상적
사라지는 공간들 아쉬움 그림에 담아
광주비엔날레 초대·제주 레지던시 참여
올해 새 작업실서 밀도있는 작업에 집중



사진과 회화가 접목된 작업을 진행하는 박인선 작가의 테마 중 하나는 도시와 집이다.

박인선(39) 작가는 지난해말 작업실을 옮겼다. 대인 시장을 거쳐 농성동에서 5년을 보내고 봉선동 주택가 가정집 2층에 새 작업실을 꾸렸다. 오랜 기간 발품을 팔아 집을 구하고 몇개월간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공간을 고쳤다. 경자년 새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더 없는 공간이다. 작업실은 흰색으로 통일시켜 깔끔한 느낌이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사이로, 작가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작업실과 친해지는 중이라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 작가는 그림과 사진이 결합된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다. 작업의 시작은 백운동 까치고개에 있던 외갓집이다. 개조된 한옥집이었던 외가가 재개발로 사라지기 전 박 작가는 잠시 이곳을 작업실로 쓰며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기록하고 지인들과 전시회를 열었다.

“사라질 공간을 작업실로 쓰면서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생각하게됐어요. 다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는 공간일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죠. 기억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매다는 설치작업을 진행했죠. 광주에서 줄곧 살았던 터라 하천이 복개되고, 동네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이후 작업에서도 그런 풍경들이 자연스레 표출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 박 작가는 전공인 평면회화를 비롯해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 무엇보다 사진 찍는 게 취미였다. 항상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주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렇게 포착된 사진은 그녀의 회화 작업과 어우러지면서 다시 편집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출사를 나갈 때면 '백'을 많이 찍었어요. 세월이 흘러 퇴화해가는 과정이 꼭 회화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건물을 보면 저 집은 웃고 있는 것 같다, 울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도시를 거닐며 기록을 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구상하죠. 촬영한 사진을 베이스 삼아 페인팅으로 개념해 들어가는 과정이 저의 작업 형태입니다. 사진을 찍고 캔버스에 인화한 후

페인팅 작업을 진행합니다.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들을 한데 모은 후 회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거죠. 합축적 형태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가지 것들을 짜깁기하고 비현실적인 요소처럼 만들기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2016년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에 초대받으며 두각을 나타낸 그녀가 계속해서 탐구해 온 건 '집'과 '건물'이다.

“건물 사진을 찍으며 건물도 관상과 표정이 있다는 사실을 매년 느껴요. 건물마다 사는 사람의 기운이 있는지, 건물 특유의 에너지가 있는 것같은 느낌을 받곤합니다. 어느 공간은 싸늘한 느낌이 들고, 어떤 곳은 따뜻하고,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이지요. 인간의 모습과 닮아있는 것같더라고요. 가끔 왜 작품 속에 인물이 등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곤하는데 얼굴을 그리지는 않지만 건축과 조형 자체가 바로 사람이고 인간의 사유, 사회적 발언 등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형태가 어우러진 조형미 속에 자연스레 융합돼 있는 거죠.”

제주도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물고기의 시각으로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는 등 바다, 환경에 대한 고민들,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작업한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또 오버랩 국제 레지던시에 참여해 필리핀

에서 시도해 본 영상작업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

비엔날레에 초청되고, 선배 미술인들이 주는 '광주미술상 대상'을 수상했던 2016년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낸 때였다. 그녀는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터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숙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박 작가가 차기 작업을 구상하며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이카루스의 날개'다.

“이카루스의 날개는 밀랍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에 날개가 녹고 말지만 너무 낮게 날면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죠. 마흔을 바라보는 저, 청년작가로서의 애매한 위치에 있는 저의 모습이 꼭 이카루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업하다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카루스의 이미지와 관련된 작업들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제 작품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어떻게 보여주기보다는 내 안의 것을 축적해 나가자”는 생각에 잠시 주춤했었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밀도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그녀가 새롭게 마련한 작업실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생산해낼지 궁금하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는 지하 연결통로도 문화공간

ACC부터 지하철문화전당역사까지 공공디자인 적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지하철 문화전당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 무대리 이전식)이 지하철 문화전당역사에서 ACC로 진입하는 6번 출구 연결통로에 공공디자인을 적용, 삭막한 통로를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 찬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 <사진>

ACC는 통로 벽과 천장 등에 나무와 각종 조화 등을 심고 LED조명을 설치했다. 통로에 들어서면 도심 속 자연에 있는 느낌이 들도록 공간을 꾸몄다. 이번 문화공간 디자인은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와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지난 2018년 체결, 콘텐츠 연계 고객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했다.

또한 ACC는 아시아문화광장에 특색 있는 패턴과 인사를 활용해 아시아인이 문화전당 방문객에게 보낸 아시아 선물상자를 설치했다.

어린이문화원 출입구 천정에는 오색반사필름을 걸어 새로운 풍경과 아울러 반사와 투과를 반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효과를 연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놀이 한마당’ 16일 남포미술관서 만나요

‘미술관서 만나는 국악의 향연’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은 오는 16일 오후 6시 남포미술관 공연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국악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국마사회 공모 기부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포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연에는 ‘좋은 기운이 이 자리에 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국악그룹 ‘다온’을 초청했다.

이예린(소리), 이현정(대금), 김진수(소금), 오경준(피리&태평소), 고미혜(해금), 장영정(건반), 장수미(타악), 윤희상(타악)으로 구성된 ‘다온’은 전통 국악을 비롯해 민요, 트로트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첫 곡은 우리나라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기악곡 ‘Fly to the sky’가 장

식하며 이어 판소리 ‘춘향가’ 중 눈대목 ‘쑥대머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들려준다. 또 영화 ‘왕의 남자’ OST로 인기를 모은 ‘인연’, 작곡가 원일의 곡으로 경기 뱃노래를 모티브로 한 ‘신 뱃놀이’, 한국 대표 민요인 아리랑 중 경기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엮어 만든 ‘아리랑연곡’, 2002부산아시아안 게임 공식 주제가로 사용된 양방언 곡 ‘Frontier’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땀바다’, ‘베사메무췌’ 등을 들려주는 남미음악 메들리와 ‘뉘와 함께’ ‘내 이야기 어때서’를 만나는 트로트 메들리, 신명 넘치는 ‘장타령’도 연주한다.

공연 당일 남포미술관은 오후 7시까지 미술관을 야간 개방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단장 마친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사전예약제로 운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박물관)은 지난 9월부터 임시 휴관했던 어린이박물관 단장을 마치고 새해 들어 재개관했다.

이번 어린이박물관 새단장은 생활문화의 확대를 위한 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아시아 최대이자 최초 복합유적인 신창동 유적과 신안해저문화재를 비롯

한 도자 문화를 중심으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 공간이 마련된 것. 이들 주제 공간의 이름은 ‘뚜벅뚜벅! 신창동, 형형색색! 도자기’.

먼저 ‘신창동’ 영역에서는 2000년 전 사람들의 생활상 체험이 가능하다. 선사시대 신창동 사람들처럼 간접적으

로나마 불을 피우고, 사냥을 하고, 농기구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도자기’ 영역에서는 도자기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신안선 체험이 가능하다. 도자기 제작과정을 둘러볼 뿐 아니라 바다 보물을 통해서도 당시 무역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박물관은 쾌적한 체험 환경을 위해 관람을 1일 총 5회로 나눠 사전예약제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시무식” 및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시무식”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